

# 중일전쟁시기 여성 생존의 곤경\*

- 巴鎭의 《寒夜》를 중심으로 -

조영경\*\*

## 목 차

1. 들어가며
2. 전란시기 독립적 여성의 현실
3. 여성의 자유 추구가 초래한 현실의 곤혹
4.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는 바鎭의 《寒夜》를 중심으로 작가의 여성인식을 살펴보고, 작가가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지식여성의 모순적 현실을 어떠한 시선으로 묘사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寒夜》는 경제적 문제, 질병,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왕원취안과 그의 부인 쩡수성 및 그녀의 시어머니가 주요 인물이다. 본고는 그 중에서 쩡수성에 주목하여 그녀가 전쟁이 야기한 비극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전란시기 독립적 여성의 현실’과 ‘여성의 자유 추구가 초래한 현실의 곤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寒夜》에서 남성인물인 왕원취안은 마르고 나약하다 못해 병들어 소멸해버리는 존재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인물은 시어머니처럼 다소 부정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현실을 지탱해 나가거나 쩡수성처럼 현실적 고난을 타개하고 초월하려는 존재로 묘사된다. 즉 어지러웠던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작가에게 있어 역사를 담당하

\* 본 논문은 2019년 4월 27일 “2019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강사

는 주체에 성별 구분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寒夜》에서의 쟁수성은 주체적인 인물로 해석이 가능하며, 그녀의 성격은 기출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진은 여성의 행복과 운명에 대항하는 인물의 처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성격이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한 현실 속 여성을 묘사하기 시작했으니, 《寒夜》의 쟁수성이 바로 그가 심사숙고하며 형상화해낸 인물일 것이다.

주제어: 바진, <차가운 밤>, 중일전쟁, 대후방, 여성 인식, 모순적 현실

## 1. 들어가며

바진(巴金, 1904~2005)은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국통구(國統區, 국민정부 지구)의 대후방(大後方) 사회현실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다수의 소설작품으로 표현하였다.<sup>1)</sup> 작가의 전쟁 현실에 대한 관심은 대후방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들에 집중되었고, 작가의 대후방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전쟁에 의해 전복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야기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인식 및 비판과 연결된다. 바진의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소설에는 전방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생생한 체험이 형상화된 것이 거의 없고, 후방에서 일어난 삶의 여러 모습들을 꺾진하게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바진이 대후방 사회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서술한 것은 전쟁이 발생한 인과관계와 책임을 따지기보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갔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바진의 후기 창작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

1)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바진의 소설은 장편소설 격류삼부곡 중 <春>(1938)과 <秋>(1940), 향전삼부곡 <火>(1부(1940), 2부(1941), 3부(1943)), 《寒夜》(1946), 중편소설 <憩園>(1944), <第四病室>(1946), 단편소설 <莫娜·麗莎>(1937), <還魂草>, <某夫婦>(이하 1941), <豬與雞>, <兄與弟>, <夫與妻>(이하 1942), <生與死>(1944), <女孩與貓>(1945) 등이 있다.

는”<sup>2)</sup> 《寒夜》(1946)를 중심으로,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여성의 삶 특히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소외, 질병 등이 중국의 지식여성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스며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寒夜》는 중일전쟁 후기의 충칭(重慶)을 배경으로 평범한 지식인 가정의 비참한 운명을 묘사한 중편소설이다. 소설은 왕윈취안(汪文宣)과 그의 부인인 썩수성(曾樹生)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왕윈취안의 어머니와 썩수성의 갈등을 기본 축으로 하여 썩수성과 그녀가 일하는 은행의 상사, 왕윈취안과 그가 일하는 출판사 동료들과의 대립 등을 부차적인 갈등 요소로 교차시키며 중일전쟁시기 막바지에 이른 대후방의 사회적 풍조를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 묘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평범하면서도 고뇌에 찬 한 가정 내의 비극이 세심한 인물 성격과 심리 묘사를 통해 작품의 밀도를 더해 주고 있다.<sup>3)</sup>

본 연구자가 《寒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샤즈칭(夏志清)이 바진에 대해 1940년대에 들어서 “인류의 상황에 대한 견해가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었다.”<sup>4)</sup>고 평가한 것과 《寒夜》가 “바진의 재능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작품이자, 바진의 가장 ‘자아’다운 소설”<sup>5)</sup>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寒夜》가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썩수성으로 대표되는 한 지식여성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상과 삶을 그리고 있으며 그녀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당시 바진이 지녔던 여성인식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寒夜》에서 바진의 여성 윤리사상은 주로 두 방면으로 표현되는데,

2) 백영길, 『현대의 중국문학』(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167쪽.

3) “그리고 그러한 작품의 공감대가 바로 전쟁의 부조리에 대한 독자의 분노와 평화에의 갈망을 환기시키는 이 작품의 예술적 성과일 것이다.”, 같은 책, 168쪽.

4) “他對於人類境況更加具體與實際的看法。”, 夏志清 著, 劉紹銘 等 譯, 《中國現代小說史》(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245쪽.

5) “巴金最具才氣的一部作品, 也是巴金最‘自我’的一部小說。”, 翟應增, <《寒夜》與巴金的“創傷性記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010年 第7期, 89쪽.

첫 번째 방면은 사회현실과 전통윤리 환경 하에서의 현대여성의 생존 곤경이다. 다른 방면은 여성해방의 물결 아래 현대여성 특히 지식여성이 도대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선택이 정말 현대여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및 진정한 여성해방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sup>6)</sup> 또한 바진 소설의 여성 인물은 크게 ‘봉건제도에 순응하여 희생되는 인물’과 ‘제도에 반항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로 나뉘어 그려졌다.<sup>7)</sup> 《寒夜》의 쟁수성은 후자인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각성이나 성공에 이르는 여성인물’에 속한다. 그녀는 집에서는 고부갈등을 겪고 일터인 은행에서는 ‘꽃병’<sup>8)</sup> 역할을 하며 권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자신의 청춘과 자유를 위해 란저우(蘭州)로 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여성해방 및 개인해방에 대한 각성에 이르는 인물이다. 《寒夜》에 나타나는 쟁수성의 성격이나 여성의식을 왕원쉬안 및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면, 바진이 작품 속에서 여성 인물을 다룬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寒夜》를 쟁수성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편소설로 상정하여, 소설 내에 존재하는 바진의 여성인식을

6) “在《寒夜》中巴金的女性倫理想主要表現在兩個方面，第一個方面是在社會現實和傳統倫理環境下現代女性的生存困境。另一個方面是在女性解放的浪潮下現代女性尤其是知識女性到底應該選擇什麼樣的人生道路，而這種選擇是否真的能讓現代女性得到幸福，以及什麼樣的解放形式才算得上是真正的女性解放。”，邱方梅、楊紅旗，〈《寒夜》與巴金的女性倫理觀〉，《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2年 2月，106쪽.

7) 陳丹晨，〈巴金創作中的女性形象〉，《文藝研究》1983年 6期，67~70쪽. 참고.

8) ‘꽃병(花瓶)’은 쟁수성의 시어머니가 그녀를 지칭하는 단어로 소설에 처음 등장하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개는 꽃병 노릇만 할 테니 월급 걱정은 하지 않을 텐데! 어머니는 시기와 증오에 차서 화를 터뜨렸다. 이 말이 아들을 얼마나 상심시키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다.(‘她們當花瓶的，不怕扣薪水。’她的妒忌和憎恨又被他那句話引起來了。)，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 474쪽. 번역은 바진 지음, 김하림 옮김, 『차가운 밤』(서울: (주)시공사, 2010), 77쪽. 참고. 즉 ‘꽃병’은 쟁수성에 대한 시어머니의 시기와 증오를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조명하고자 한다.<sup>9)</sup> 아울러 바진의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소설에서 여성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나아가 바진이 어지러운 대후방 사회의 틈바구니 속 여성의 현실과 한계를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전란시기 독립적 여성의 현실<sup>10)</sup>

본고가 주목할 점은 쟁수성이 기출을 통해 독립적인 여성으로 서게 되는 과정이 그녀가 사상적 각성을 통해 자립하는 실존적 인간임을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왕원쉬안,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왕원쉬안은 “앞에서든 뒤에서든 모두들 그를 ‘호인(老好人)’이라고 불리기 일췌였다”<sup>11)</sup> 인물로, 자신의 본심과 다르더라도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혼자 끙끙대며 참고, 결국 힘든 일의 대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그의 우유부단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성격은 쟁수성과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sup>12)</sup> 소설 초반에 쟁수성

9) 《寒夜》를 다룬 최근의 국내 논문으로는 박난영, 「『차가운 밤』의 쟁수성의 곤경을 통해 상상해본 이상적 성별질서」, 『中國小說論叢』第55輯, 2018.이 있다. 이 논문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1940년대 중국 지식여성의 출로와 현대사회의 이상적 성별질서를 살펴본 반면, 본고는 텍스트에 나타난 작가의 인물묘사를 분석함으로써 작가의 여성인식을 헤아리고자 하므로 이전 논문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0) 본 장에서는 졸문 『전쟁 시기(1937~1946) 바진 소설의 현실인식과 비극성』(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12.) 일부를 참고하였다.

11) “當面也好, 背後也好, 大家喜歡稱他做‘老好人’.”, 巴金, 《寒夜》, 《巴金全集》제 8권, 488쪽.

12) 袁阿靜은 “왕원쉬안과 쟁수성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작가는 여성에게 더 많은 주도권을 주었다. 부인이 남편을 중심으로 여기던 옛 전통은 철저하게 전복되었고, 쟁수성은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내에 대한 왕원쉬안의 의존이 훨씬

은 왕원쉬안과 말다툼을 하고 찾김에 집을 나가는데,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그리워하다 일상생활을 모두 망쳐버리고 만다. 그는 쟁수성의 삶에 있어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왕원쉬안의 삶의 전부였다.

‘그녀를 떠날 수 없다’라는 말에 그는 스스로 상처를 입었으며 쓸쓸해졌다. 쓸쓸함 속에는 초조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sup>13)</sup>

“쟁수성은 자신의 생명의지에 따라 사는 독립적이고 강한 인물이지만, 왕원쉬안은 곳곳에서 참고 양보하며, 자아가 약해지면서 권위에 맹종하는 빌붙는 약자”<sup>14)</sup>다. 위기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쟁수성이 대범하게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 왕원쉬안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눈물범벅이 되어 마치 “영원히 자라지 못하는 아이”<sup>15)</sup>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는 참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인 양 행동하다가 정작 마음 속 진실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눈물을 흘릴 뿐이다. 게다가 자신의 폐병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며 심지어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취한다. 바로 답답한 감정과 고민이 가슴 속에 가득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을 때 술집에 가서 술을 빌려 걱정을 털어버리려는 모습이 그것으로, 이는 왕원쉬안이 삶에 대한 상실감과 그에 따른 적막과 초조함에 대항하지 못하는 불안하고 유약한 인간임을 보여준다.

---

많았다.(在文宣與樹生的夫妻關係上, 作者給予了女性更多的主動權。舊時妻子以丈夫為綱的傳統遭到了徹底的顛覆, 樹生不僅不依賴於丈夫, 相反, 文宣對妻子的依賴要更多些。)면서, 두 사람의 성별역할이 마치 도치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袁阿靜, <<寒夜>: 女性精神世界的鏡子>, 《文學界(理論版)》 2013年 1期, 25쪽.

13) “離不開她”四個字傷了他自己, 使他感到寂寞。寂寞中又夾雜了一點焦急不安。”,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499쪽.

14) “曾樹生按照自我生命意志活著, 是獨立者與自強者, 而汪文宣處處忍讓、弱化自我、盲從權威, 是一個依附者和弱者。”, 盧曉, <兩種不同生命力狀態的沖突 - 論《寒夜》中的愛情悲劇>, 《大家》 2010年 第8期, 16쪽.

15) “一個永遠長不大的孩子”, 袁阿靜, 앞의 글, 25쪽.

또한 왕원취안은 “어머니 앞에서 아직도 온순한 아이에 지나지 않았”<sup>16)</sup>으며, “뚜렷한 관점이 없었”<sup>17)</sup>던 탓에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늘 울먹거리며 참고, 회사 내에서도 존재감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소설에서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들을 가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의 의지를 잃어버린 듯한 인상을 주고, 사회 현실과 정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sup>18)</sup>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늘 “항일전에 승리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sup>19)</sup>라 말하며 기약 없는 미래에 희망을 기탁하려는 낙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마음이 쓰렸고, 불만스런 감정도 생겨났다. 갑작스런 이런 감정에 그녀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울고 싶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참았다. 따뜻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 선량하지만 무기력하고 병든 남편, 극히 이기적이고 완고하며 보수적인 어머니, 싸움과 질시, 적막과 빈곤, 전쟁 중에 사라진 청춘, 자신이 추구하고 노력했으나 날아가 버린 행복, 어두운 앞날 ...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솟구쳤다.<sup>20)</sup>

16) “他在母親的面前還是一個溫順的孩子”，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 450쪽.

17) “他並沒有自己的明確的看法”，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 480쪽.

18) 다음의 문장은 사회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왕원취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생활의 부담에 눌려서 그는 몇 년 동안 줄곧 시원하게 숨 한 번 내쉬지 못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그와 무슨 관계가 있나? 사람들은 모두 세계정세가 점점 호전되어간다고 말하지만, 그의 나날은 매일매일 더욱 나빠졌다.(生活的擔子重重地壓著他，這幾年他一直沒有暢快地吐過一口氣。周圍的一切跟他有什麼關係呢? 人人都在對他說，世界大局一天一天地在好轉，可是他的日子卻一天比一天地更艱難了。)", 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 470쪽.

19) “等到抗戰勝利了，大家就可以相安的。”，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 555쪽.

20) “她覺得心酸，她又起了一種不平的感覺。這是突然襲來的，她無法抵抗。她想哭，卻竭力忍住。沒有溫暖的家，善良而懦弱的患病的丈夫，極端自私而又頑固、保守的婆母，爭吵和仇視，寂寞和貧窮，在戰爭中消失了的青春，自己追求幸福的白白的努力，灰色的前途… 這一切像潮似地湧上她的心頭。”，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 539쪽.

쥘수성은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천 주임(陳主任)에게 란저우로 함께 피난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불현듯 위와 같이 자신의 처지와 가족의 상황을 떠올린다. 그녀는 남편 왕원쉬안과 같은 대학 교육학과를 나와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자 했고 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근대교육을 받고 개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쥘수성은 전쟁 발발 후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신체적으로도 모두 나약해져가는 왕원쉬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사라지고 그와 동등해지려는 주체의식이 강해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황하는 쥘수성에게 대후방의 혼돈 상황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상승시키는 요소다. 돈을 벌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은행에서의 꽃병 역할을 하지만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커피숍을 드니다며 파티에 가서 춤을 추는 집 밖에서의 생활과, 자신을 정부라 멸시하는 시어머니와 병들어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남편과 무뚝뚝한 아들이 있는 ‘따뜻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 안에서의 생활은 혼돈 그 자체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쥘수성에게 전쟁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제이다.

생명은 이처럼 무미건조하게 조금씩 소모되어 가고 있었다. 수성의 인내력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나? 이곳은 생명을 갉아먹는 감옥이 아닐까? 그녀는 날아야 한다, 날아야만 한다, 아직 날개가 있을 때. 그녀는 왜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녀는 그들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니, 그들과 함께 희생될 수는 없다.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건 그녀 자신이다.<sup>21)</sup>

쥘수성이 바라는 것은 독립적 존재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한다. 이러한 그녀의 심리는 관습적으로 주

21) “生命就這樣平平淡淡一點一滴地消耗。樹生的忍耐力到了最高限度了。她並沒有犯罪，爲什麼應該受罪？這裏不就是使生命憔悴的監牢？她應該飛，她必須飛，趁她還有著翅膀的時候。爲什麼她不應該走呢？她和他們中間再沒有共同點了，她不能陪著他們犧牲。她要救出她自己。”，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 588쪽.



어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의 본질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아의 고민을 표출한 것으로, 이후 실존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욕망은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과 함께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난 어둠이 무섭고, 쓸쓸함이 두렵고, 적막이 싫어요.”<sup>22)</sup>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저 유쾌하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해요.”<sup>23)</sup>

썩수성은 구속을 싫어하는 독립적 사고의 소유자로 그 어떤 것에도 구애 받지 않고 ‘그저 유쾌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욕망 실현은 ‘어둠과 쓸쓸하고 적막한’ 현실과 충돌한다. 여기서의 현실은 병든 남편 왕위쉬안이 아닌 그의 어머니 즉 그녀의 시어머니다.

《寒夜》에는 두 명의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썩수성과 그녀의 시어머니가 바로 그들로, 이들의 왕위쉬안에 대한 태도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지만 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비중을 가진다는 면에서 비슷하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반드시 윈난(雲南) 쿤밍(昆明)의 재녀였을 것”<sup>24)</sup>이라는 작가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구시대 여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여성 사상에 우호적이지도 않은 인물이다. 특히 일찍 과부가 되어 “아들에 대한 전통적인 과부가 지니는 강렬한 소유욕을 가지”<sup>25)</sup>고 있었는데, 그 소유욕은 자신보다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 썩수성이 자신에 대한 아들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썩수성에 대해 갖은 방법으로 트집을 잡고 적대적인 태도<sup>26)</sup>를 취하게 하는 원

22) “我就怕黑暗, 怕冷靜, 怕寂寞。”,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500쪽.

23) “我活著的時候我只想活得痛快一點, 過得舒服一點。”,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502쪽.

24) “她從前念過書, 應當是雲南昆明的才女。”, 巴金, <談《寒夜》>(《作品》新1권 제5, 6기 합본호에 최초 발표), 《巴金全集》 제20권, 505쪽.

25) “有著傳統的寡婦對兒子的強烈占有欲”, 邱方梅、楊紅旗, 앞의 글, 107쪽.

인이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왕원취안의 어머니가 쟁수성을 결코 아들의 아내가 아닌 동거녀일 뿐이라 치부하며 무시하면서도 쟁수성의 늦은 귀가, 짙은 화장 등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거슬러하며 비난할 때에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들먹이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가 가진 아내라는 역할에 대한 관념이 쟁수성의 그것과 매우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시어머니의 관념 속에서, 쟁수성은 반드시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역할을 맡아, 자아희생의 정신을 본보기로 삼으며 남편을 대하고 아들을 교육시켜야 했다. 바로 그녀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아내 된 여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직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쟁수성에게는 그녀가 며느리일 때 가졌던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과 효심 및 순종이 없었기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위엄과 지위를 찾고자 했지만, 그 일이 쟁수성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다.”<sup>27)</sup> 왕원취안의 어머니는 줄곧 아들이 쟁수성과 헤어진 다음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고, 쟁수성과의 끝없는 말다툼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쟁수성은 남편을 생각하면 자신이 왕원취안과 함께 할 것을 선택하였으니 현실의 어려움도 인내하고

26)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馮靜은 시어머니가 심각한 “아들을 사랑하는 콤플렉스(愛子情結)”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여겼다. 즉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녀로 하여금 분개와 각박한 감정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馮靜은 “설령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우 효성스럽더라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그 잠재의식은 역시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기울어진다. 이는 줄곧 아들이 전부였던 시어머니에게 있어, 당연히 마음 속 감정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盡管兒子也十分孝順母親, 但在母愛與妻愛之間, 其潛意識還是向妻愛傾斜. 這對一向占有兒子全部感情的汪母來說, 自然會引起內心情感的失衡.)”라 말하면서, 《寒夜》속 시어머니와 쟁수성의 다툼을 시어머니의 질투로 인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馮靜, <對《寒夜》中汪母心理的分析>, 《安康學院學報》第21卷 第1期, 2009, 61쪽.

27) “在汪母的觀念裏, 樹生應該扮演傳統的賢妻良母的角色, 本著自我犧牲的精神相夫孝子, 正如她自己所做的, 她認為這才是一個為人妻的女人應盡的職責.”, “汪母想要恢復自己作為婆婆的威嚴和地位, 然而她明白在曾樹生這裏是不可能的.”, 邱方梅、楊紅旗, 앞의 글, 107쪽.

뜻뜻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다짐하다가도<sup>28)</sup>, 시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에 맞닥뜨리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왕원쉬안에게 “나는 당신을 동정할 뿐 다시 사랑할 수는 없어요.”<sup>29)</sup>라 말하며 이별을 고하기에 이른다.

‘나는 정말 그를 떠나야 하나? - 그러면 나는 내 행복을 희생하고 그와 함께 해야 하나? - 그는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해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를 구할 수 있을까, 그의 어머니가 날 원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의 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가능해.’ 이어서 그녀는 생각했다. ‘쓸데없는 짓이야. 난 나를 구해야만 해.’<sup>30)</sup>

이렇듯 썩수성의 진정성은, 남편 왕원쉬안과 14년간 동거를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왔으나 그녀를 정부라 폄하하고 무시하다가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비난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로서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그치는 시어머니라는 현실에 부딪혀 좌절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 고뇌하고 자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

28) 작품을 보면 썩수성이 왕원쉬안에게 대하는 행동과 말투가 결코 차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소설 초반 썩수성이 왕원쉬안과 싸우고 햇김에 집을 나가고 이에 힘들어하며 술을 마신 왕원쉬안이 거리에서 썩수성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썩수성이 보인 반응은 “부드러운 외침(柔和的呼喚)”, “놀라서 묻는다(驚問道)”, “관심을 가지고 말한다(關心地說)”, “급하게 말한다(著急地說)”, “큰 소리로 신신당부한다(大聲叮囑道)”가 있고, 이어서 “마로 또 그를 따라 걸어가(馬上又跟著他走下去)”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 같은(孩子似的)” 왕원쉬안을 “부축하여 집에 돌아갔다(扶著走回家去)”고 되어 있다.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462~463쪽. 즉 썩수성은 결과적으로 가출을 하여 란저우로 떠나지만, 그녀가 가출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망설이고 고민했던 이유는 바로 남편 왕원쉬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29) “我只能憐憫你, 我不能再愛你。”,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645쪽.

30) “我真的必須離開他嗎? - 那麼我應該犧牲自己的幸福來陪伴他嗎? - 他不肯治病, 他完決了. 我能夠救他, 能夠使他母親不恨我, 能夠跟他母親和睦地過日子嗎? 她想了一會兒, 她低聲說出來: ‘不能.’ 接著她想: 沒有用, 我必須救出自己。”,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572쪽.

게 된다.

### 3. 여성의 자유 추구가 초래한 현실의 곤혹

쥘스성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회 변화와 함께 개인적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경제력이다. 그녀는 왕원쉬안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으며 가정 살림의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고, 비록 자신이 원하던 직업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일을 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처지에 비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듯 그녀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의미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요소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직, 사직하면 되죠! 당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부양할 수 있어요!”<sup>31)</sup>

쥘스성이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왕원쉬안에게 사직을 권하면서 자신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 대항하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강해지는’ 성격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쥘스성이 가출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집을 나온 노라의 운명에 대한 예측을 통해 여성해방의 전제조건이 참정권이 아니라 경제권에 있음을 강조한 루쉰의 산문 <노라는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되었는가 娜拉走後怎樣>를 떠올리게 한다. 루쉰은 그 글에서 집을 나온 노라가 택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 길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sup>32)</sup> 바진이 일찍이

31) “辭職, 就辭職! 你不做事我也可以養活你!”,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554쪽.

32) “但從事理上推想起來, 娜拉或者也實在只有兩條路: 不是墮落, 就是回來。”, 魯迅, <娜拉走後怎樣>, 《魯迅全集·1》(上海: 人民文學出版社, 1973), 145쪽. 번역은 루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싶어 한다. 사람은 한 개의 생명밖에 없어서 하나의 삶만 살 수 있으니, 누구든 있는 힘껏 자기 삶을 잘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살면서, 즐거움을 원하고, 햇빛을 원한다.”, “누구도 ‘생’과 ‘즐거움’을 우리에게서 박탈해갈 권리는 없다.”<sup>33)</sup>라고 말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寒夜》는 루쉰의 산문이 표명한 여성해방이라는 주제 의식을 개인해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유한다. 그리고 그 개인해방의 근저에는 여성의 경제력이 자리하고 있다.

정수성이 누렸던 자유는 향락만이 아닌, 인격 완성을 위해 진행된 긍정적인 자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녀의 행위는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정수성의 가출은 명확한 개인해방의 의지와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녀는 그 의지와 자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갖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자유는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수반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란저우로 떠난 지 2개월이 지난 후 정수성이 충칭의 집으로 돌아와 왕원취안이 죽었고 시어머니와 아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끼는 것은 “마치 정면으로 찬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에 한기를 느끼고, 안색이 창백해”<sup>34)</sup>지는 놀라움과 “콧날이 시큰해지고 회한의 감정이 교차하”<sup>35)</sup>는

선 지음,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1』, 서울: (주)그린비출판사, 2014, 244쪽. 참고

33) “所有的人都是想活的。一個人只有一個生命，只能活一生，所以誰都想盡力使它過得很好。我們活著的時候，我們需要快樂，需要日光。”，“誰也沒有權利把‘生’和‘樂’給我們剝奪去的。”，芾甘，《從資本主義到安那其主義》(上海：上海自由書店，1930)，176쪽. 여기서는 盧曉，앞의 글，17쪽에서 재인용.

34) “樹生好象讓人迎頭澆了一桶冷水似的，她全身發冷，臉色慘白。”，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695~696쪽.

35) “她的鼻頭酸痛，悔恨的情感扭絞著她的心。”，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697쪽.

후회와 증오의 감정이다. 이는 그녀가 가족해체와 맞바꾼 개인의 자유가 초래한 현실에의 곤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평탄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sup>36)</sup> 특히 그녀는 아래층에 살다가 지금은 자신이 살던 집에 들어와 사는 팡 부인(方太太)의 단란한 가정을 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망쳐버리는 데에 가세했다.”<sup>37)</sup>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갑자기 꿈을 꾸는 듯했다. 자신이 살던 방, 탁자, 책상, 책장, 찬장, 침대 등 자신이 쓰던 가구… 모든 것이 그녀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비록 부서진 것은 수리하고, 오래된 것은 깨끗이 닦고, 벽을 하얗게 칠했다고는 하지만. 그녀는 몇 년 동안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에 지금은 낯선 손님으로 앉아 있게 되었다. 심지어 익숙한 모든 것들에게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똑같은 초가 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더 밝았다. 1년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는 죽었고 어머니와 아이는 사라졌다.<sup>38)</sup>

쥘수성은 ‘자신이 살던 방’에 ‘낯선 손님으로 앉아서’ 팡 부인이 아기에게 불러 주는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사라진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하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보며 왕원쉬안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이처럼 그녀는 기층에

36) 王芳麗는 “비록 쥘수성에게 선명한 신시대 여성의 사상과 행동이 나타났을 지라도, 여성 특히 아내에 대한 전통적 윤리도덕의 제약은 여전히 그녀에게 일정한 영향을 만들어낸다.(儘管在她身上體現出了鮮明的新時代女性的思想和行動, 但傳統的倫理道德對女性尤其是對妻子的約束仍對她產生著一定的影響。這也造成了她的矛盾、猶豫和痛苦。)”고 말하며 쥘수성의 현실에의 곤혹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王芳麗, <曾樹生的妻性和母性>, 《山西煤炭管理幹部學院學報》2007年 1月, 91쪽.

37) “她爲了自己的幸福, 卻幫忙毀了別一個人的。”,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699쪽.

38) “她忽然起了一種似在夢中的感覺。這是她自己住過的屋子, 自己用過的家具: 方桌, 書桌, 小書架, 碗櫥, 床… 一切都是她熟悉的, 雖然破的修理好了, 舊的弄幹淨了, 牆壁刷得白白的。可是她坐在她坐了幾年的凳子上, 現在卻變成了一個陌生人, 一個生客。甚至在那一切熟悉的東西上面她也找不到過去的痕跡了。同樣燃著一支蠟燭, 可是現在卻比從前亮了許多。不到一年的功夫, 一切都改變了。他死了, 母親和孩子走了。”,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698쪽.

대한 후회와 동요, 과거에 대한 미련 및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허망한 감정을 드러낸다. 물론 쟁수성이 겪게 된 시련은 한 개인이 독립된 자아로서 주체적 자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설정되는 것일 수 있다. 그녀는 화목한 가정, 남편과의 소통,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그토록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한 결핍과 소외감은 그녀가 가출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돌아온 날에도 ‘똑같은 초가 그 때보다 더 밝게 느껴지게 했다. “쟁수성은 여전히 자신의 낭만주의적인 이상과 사랑을 견지한”<sup>39)</sup> 강한 주체적 자립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상과는 확연히 다른 현실 속에서 그녀는 가족 해체와 결혼 실패를 겪은 당시의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바진은 이후 《寒夜》의 세 인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쟁수성과 시어머니는 왕원쉬안이 병사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를 살려내려고 했지만 실제의 행동은 마음과는 달리 오히려 그를 일찍 사망하도록 했다고 결과적으로 왕원쉬안이 죽은 것에 대해 두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왕원쉬안 역시 살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어머니와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으며 몸을 혹사시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가는 《寒夜》의 인물들이 이러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데에는 중일전쟁과 내전시기라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어지러운 사회체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설마 세 사람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나?

아니다. 세 사람 모두 제정신이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빨리 붕괴되어야 할 구사회·구제도·구세력이 뒤에서 그들을 지휘한 것이다. 그들은 반항하지 않아서 모두 희생자가 되었다. 구세력은 그들을 훼멸시키려 했고,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생각이 없었다. 사실 그들은 결코 어떻게 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몰랐다.<sup>40)</sup>

39) “曾樹生還在堅持自己浪漫主義的理想愛情”，任現芝，〈《寒夜》女性的婚姻愛情〉，《青年作家》2011年4期，89쪽.

바진의 소설에는 등장인물의 운명을 시대배경 및 사회구조와 연관지어 서술한 것이 많다.<sup>41)</sup> 《寒夜》에서 중일전쟁은 작품의 시대배경이면서도 구조적 폭력이 행해지는 데에 있어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한 왕원쉬안은 물론 결코 체념하며 굴복하지 않고 출로를 찾으려 했지만 그 출로가 불투명해진 쩡수성은 전쟁이라는 폭력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약한 개인일 뿐이다. 이들은 구조적 폭력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 이 폭력을 중단시킬 만한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바진은 이렇듯 전쟁이 야기한 폭력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개개인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비극적인 시대상을 작품에 반영하였다.

바진이 《寒夜》를 쓴 시기는 1944~1946년 말로, 중일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때다. 이때는 전쟁 초기의 열정은 사라지고 치솟는 물가로 인한 어려운 형편에 많은 이들이 패배감과 무력감을 지닌 채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다. 이렇듯 물질적 가난과 정신적 소통의 결핍에서 비롯된 가족 해체의 근저에는 전쟁이 잠복해 있었다. 쩡수성은 왕원쉬안과 상하이(上海)의 한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겠다는 꿈을 함께 꾸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충칭으로 이사를 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족 해체의 전조는 가족의 기반이 불안한 것에서 온다. 가족의 외적 형

40) “難道三個人都發了狂?

不，三個人都沒有發狂。他們都是不由自主的。他們的一舉一動都不是出於本心，快要崩潰的舊社會、舊制度、舊勢力在後面指揮他們。他們不反抗，所以都做了犧牲者。舊勢力要毀滅他們，他們不想保護自己。其實他們並不知道怎樣才能保護自己。”，巴金，〈談《寒夜》〉，《巴金全集》 제20권, 506~507쪽.

41) 중일전쟁 이전의 소설을 예로 들면, 처녀작 <滅亡>(1928)에서 주인공 두다신(杜大心)이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동료 장웨이췌(張爲群)의 체포와 참수로 인한 것으로, 결국 그 또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계엄사령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자살을 선택한다. 또한 <滅亡>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新生>(1931)에서의 리령(李冷) 역시 자신과 생사를 함께 하던 방직공장의 노동자 파업을 포기하고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한다.



태가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된다면, 가족 관계의 파편화를 초래한 내적 요인은 정서적 결핍에서 기인한다. 썩수성과 왕원취안은 전쟁으로 인해 급속도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데다 시어머니와의 끝없는 다툼과 간섭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만족하지도 못했다. 결국 왕원취안은 자신의 어머니와 썩수성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상처를 받다 죽어갔고, 썩수성은 물질적 가난에서 벗어나 짧은 시절의 열정적인 삶을 향유하고자 가족을 등지고 집을 나오기에 이른다. 두 사람의 가정은 경제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모두에서 결핍을 지닌 불안정한 공동체였다.

결국 소설의 마지막 두 문장 “밤은 확실히 너무 추웠다. 그녀는 따뜻함이 필요했다.”<sup>42)</sup>가 사무치게 차갑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것은, 썩수성의 가솔 자체는 권태적이고 종속적인 삶을 부정하는 자아해방의식을 보여주지만 그녀는 추운 밤과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는 외로운 한 개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4. 나오며

바진의 글쓰기는 사건의 서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비판하고 사회를 고발하는 성격을 가지며, 바진은 구체적 인간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포착해냄으로써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대후방의 현실을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바진은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발산하던 것에서 이성적으로 소설 속 인물을 대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 및 여성해방에 대한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전쟁 이전의 소설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봉건가족제도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했고 여성에 대해 절절한 동정과 관심을 표현했지만 전쟁 이후

42) “夜的確太冷了。她需要溫暖。”，巴金，《寒夜》，《巴金全集》 제8권, 702쪽.

의 소설에서는 그 태도가 객관적이고 냉정해졌으며 신여성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이전의 격앙된 정서는 가리앉았다. 그는 일찍이 사람들이 추앙했던 신여성의 모습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개성해방과 인격독립을 추구하는 현대여성형상을 다시 생각하고 자리매김했다.”<sup>43)</sup> 이는 바진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에 비해 성숙해진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寒夜》에서 남성인물인 왕원취안은 마르고 나약하다 못해 병들어 소멸해버리는 존재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인물은 시어머니처럼 다소 부정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현실을 지탱해 나가거나 쟁수성처럼 현실적 고난을 타개하고 초월하려는 존재로 묘사된다. 즉 어지러웠던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작가에게 있어 역사를 담당하는 주체에 성별 구분은 없었던 것이다. 바진이 “세 사람은 모두 정면 인물도 아니고, 반면 인물도 아니다. 모두가 다 장점도 있고 결점도 있다. 나는 그들을 비판한 적이 있지만, 그들을 동정한다. 그들 모두를 동정한다.”<sup>44)</sup>라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속 인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작가의 복잡한 애정과 증오가 서로 맞물려 형상화된 것이다.

인간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이며, 이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 역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상이 불가능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복잡함과 모순성, 사건들의 예측 불가능성과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학일 것이다. 문학이야말로 인간 존재에 대한 변화무쌍한 이야기들을 통해 인간이 가진 여러 모습들과 생활 면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진이 처참하고 슬프지만 비극적인 운명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인해 붕괴된 가정 앞에 무너지고 마는 인물을 소설 속에 묘사한 이유는, 비록 당장은 거북하고 우울하더라도 다뤄야 할

43) “早先的激昂情緒沉澱下來，他開始質疑早起人們推崇的新女性形象，重新思考與定位尋求個性解放和人格獨立的現代女性形象。” 邱方梅、楊紅旗， 앞의 글， 106쪽.

44) “三個人都不是正面人物，也都不是反面人物；每個人有是也有非；我批評過他們，但是我同情他們，同情他們每個人。” 巴金，〈談《寒夜》〉，《巴金全集》 제20권， 503쪽.

문제들을 사람들이 알아야한다는 작가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寒夜》에서의 쨥수성은 주체적인 인물로 해석이 가능하며, 그녀의 성격은 가출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진은 여성의 행복과 운명에 맞닥뜨려진 인물의 처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졌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혁명여성을 표현하던 것에서 성격이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한 현실 속 여성을 묘사하기 시작했으니, 《寒夜》의 쨥수성이 바로 그가 심사숙고하며 형상화해낸 인물일 것이다.

참고문헌

- 巴金, 《寒夜》, 《巴金全集》 제8권.
- 巴金, <談《寒夜》>, 《巴金全集》 제20권.
- 바진 지음, 김하림 옮김, 『차가운 밤』, 서울: (주)시공사, 2010.
- 루쉰 지음,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1』, 서울: (주)그린비출판사, 2014, 244쪽.
- 백영길, 『현대의 중국문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167~168쪽.
- 芾甘, <從資本主義到安那其主義>, 上海: 上海自由書店, 1930, 176쪽.
- 夏志清 著, 劉紹銘 等 譯, 《中國現代小說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245쪽.
- 박난영, 『『차가운 밤』의 정수성의 곤경을 통해 상상해본 이상적 성별질서』, 『中國小說論叢』 第55輯. 2018.
- 陳丹晨, <巴金創作中的女性形象>, 《文藝研究》, 1983年 6期, 67~70쪽.
- 翟應增, <《寒夜》與巴金的“創傷性記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0年 第7期, 89쪽.
- 盧曉, <兩種不同生命力狀態的沖突 - 論《寒夜》中的愛情悲劇>, 《大家》, 2010年 第8期, 16쪽.
- 魯迅, <娜拉走後怎樣>, 《魯迅全集·1》, 上海: 人民文學出版社, 1973, 145쪽.
- 馮靜, <對《寒夜》中汪母心理的分析>, 《安康學院學報》 第21卷 第1期. 2009, 61쪽.
- 邱方梅·楊紅旗, <《寒夜》與巴金的女性倫理觀>,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年 2月, 106쪽.
- 任現芝, <《寒夜》女性的婚姻愛情>, 《青年作家》, 2011年 4期, 89쪽.
- 王芳麗, <曾樹生的妻性和母性>, 《山西煤炭管理幹部學院學報》, 2007年 1月, 91쪽.
- 袁阿靜, <《寒夜》: 女性精神世界的鏡子>, 《文學界(理論版)》, 2013年 1期, 25쪽.

Abstract

The Plight of Women's Survival in the Sino-Japanese War

- based on BaJin's <Han ye> -

Cho, Young-kyung\*

This paper examined the author's female perception focusing on BaJin's <Han ye> and looked at how the author looked at the contradictory realities of knowledge wome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civil war between the Kuomintang and the Communist Party.

<Han ye> deals with economic problems, diseases and marital conflict and Wang Wenxuan, his wife Zeng Shu-sheng and her mother-in-law are the main characters. This paper was paying attention to Zeng Shu-sheng, dividing her efforts to overcome hardships in the tragedy caused by the war and her frustration in the reality she faced nonetheless into 'the reality of independent women in the warring period' and 'the predicament of reality caused by women's pursuit of freedom'.

In <Han ye>, Wang Wenxuan, a male character, is described as being skinny and weak and sick and dying, while female characters are described as being in a somewhat negative way like her mother-in-law, but trying to sustain reality or overcome and transcend realistic hardships like Zeng Shu-sheng. In other words, there was no gender distinction among the subjects in charge of history for writers during the chaotic Sino-Japanese War and the Civil War between the Kuomintang and the Communist Party. Also in <Han ye>, Zeng Shu-sheng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self-reliant person, and her personality is clearly revealed by the process of running away from home. BaJin was interested in the situation of the character faced with the happiness and fate of the woman. And he began to describe a real-life woman whose personality was complex and sometimes contradictory.

---

\* Korea University

After all, Zeng Shu-sheng of 〈Han ye〉 must be the person he thought hard about and shaped.

Key Words : BaJin, <Han ye>, Sino-Japanese War, the home front, understanding women, contradictory reality

<필자소개>

이름 : 조영경

소속 : 고려대학교

전자우편 : ykcho8325@gmail.com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9일

심사완료일 : 2020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7일